세계문화유산도시

경주

불국사 · 석굴암 10D

불국사는 751년(경덕왕 10) 당시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창건한 사찰로 1973년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다보탑, 석가탑, 청운교 · 백운교 및 연화교 · 칠보교 등 경내의 조형물 하나하나가 신라 불교 미술의 뛰어난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으며, 법당과 탑이 서있는 기단 위의 가람 자체가 불국을 상징하고 있다. 석굴암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굴사원으로 김대성이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하여 석불사(석굴암)을 창건하였다. 거친 화강암으로 아름다운 부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것은 통일신라 불교미술의 백미라 할 수 있다.

불국사 불국로 385 / 054)746-9913 / 버스노선 10, 11, 12, 700
석굴암 불국로 873-243 / 054)746-9933 / 버스노선 12

경주역사유적지구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유적의 성격에 따라 불교미술의 보고인 남산지구, 천년왕조의 궁궐터인 월성지구, 신라왕릉을 비롯한 고분군 분포지역인 대릉원지구, 신라불교의 정수인 황룡사지구, 왕경 방어시설의 핵심인 산성지구로 구분된다. 신라천년(B.C 57 ~ A.D 935)의 수도(首都)인 만큼 불교유적, 왕경조(王京朝)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유적이 밀집도, 다양성이 뛰어난 유적지로 평가된다.

버스노선 60, 61

한국의 역사마을 7A

양동마을은 5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나라 대표적 전통마을이다. 오랜 건축 및 생활 양식이 전승, 보존되고 있는 마을임을 인정받아 동강서원, 옥산서원, 독락당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조선시대 상류주택을 포함하여 150여 채의 기와집과 초가집들이 고재창연함을 자랑하고 있다. 경주 손씨와 여강 이씨 양 가문에 의해 형성된 집성촌으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된 마을이다. 이곳에서는 옛 환경과 생활모습을 감상할 수 있으며, 유교 전통문화와 관습 그리고 고택 체험도 할 수 있다.

강동면 양동마을길 134 / 054)762-2630
버스노선 203, 252